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9호 [루게 제23301호] 주제 99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월 28일과 29일 라오스, 이란의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연혁소개설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립되고 발전하여온 평양의학대학은 오늘 나라의 보건기술인재양성의 믿음직한 기지의 하나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오신 주석의 은덕은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대학에 전신실 교육과학사료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발전과 의학과학연구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이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대학을 돌아보신 다음 대학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통일식료품

《김일성전집》 제 91 권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전집》 제 91 권 형과 교육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평양무용대학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하시면서 교육교양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또한 신문은 최근 김일성주석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통일식료품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 대안천선유리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들을 또다시 안겨줄수

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과업, 방도들이 밝혀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는 앞으로 전군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며 최고사령관에게 충성을 다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인민군대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신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로작에는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모든 인민군대들을 일당일군으로 준비시키고 전군을 혁명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군대를 명실공히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천명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광양도 김일성군사재지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향약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등의 로작들이 혁명전적의 혁명사적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고귀한 투쟁력사 갖들어있는 성스러운 곳이며 우리 인민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이 이곳을 수없이 찾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로작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로작에서 인민경제의 2대구성부분의 하나인 농업생산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우리 당의 조국통일일선의 승리와 양로의 과업에 대하여》,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등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편향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소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여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 데 기여할데 대한 문제, 총련에서 대외의 단합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해외교포들이 총련의 모범을 본받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을 밝힌 로작들도 들어 있다. 《김일성전집》 제 91 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추진시키기 위한 위대한 길을 밝혀준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로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집회를 만들고 건설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2.16경축 우크라이나준비위원회 결성

2011년 2.16경축 우크라이나준비위원회가 11월 26일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크라이나 케르보중합대학 교수, 박사 겐 나비에르비치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011년 2월의 명절을 맞아 강연회, 사진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들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대고조의 전렬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중업원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판철하기 위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중업원결기모임이 13일에 진행되었다. 우수합성복도당위원회 책임인사, 판매부서 일군들, 기업소중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자들의 창조적의욕과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추동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 보내신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기업소와 근로자들은 기업소와 근로자를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튼튼히 구

황철소시 중량레루생산공정의 기술개진 활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중량레루생산공정의 기술개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전군속도를 높이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강압연장공정의 생산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사업과 건물개진공정의 기술개진사업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등 정치사업에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중량레루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데 기초하여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조강압연장공정을 비롯한 중요생산단위의 설비보수에 힘을 집중하면서 생산정착화를 위한 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또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중량레루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조강압연장공정의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투쟁을 높이 발휘하여 설비보수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쳐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재들

모든 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박천견직공장에서

박천견직공장에서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동원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날계획을 그날로 꼭꼭 수행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조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걸음 힘차게 내달리도록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화선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안의 모든 직장들에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중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1직조직장에서는 설비점검보수를 실속있게 하여 일반적 생산에서 높은 생산실적을 내고있으며 2직조직장에서는 기대공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중산투쟁을 벌려 질이 좋고 문양이 고운 비로도들을 많이 생

양들을 새로 개발한데 이어 대고조장에 컴퓨터에 의한 종합경영관리체계를 세우고 날연기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등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치수를 높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장직공장은 기계공정, 정평도자기공정에서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정평도자기공정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년간계획을 넘달리상이나 앞당겨 끝낸 기계도장이 여러가지 도자기제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상품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 초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평도자기공정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도자기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질이 괜찮다고 평가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치하의 말씀을 전달받은 공정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제작작업반원들은 기대판리를 짜고두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밤사발과 국사발 생산을 높이고있다. 소성작업반원들은 소성로보수와 판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소성로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원로작업반원들은 원로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제품개발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공예작업반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멋있고 쓸모있는 여러가지 크고작은 단지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그들은 단지형타를 새로 개조하고 단지의 모양을 보기 좋게 하고있으며 고무부품을 비롯한 새 제품들의 개발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선화작업반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제품의 장식효과가 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전기작업반, 고무작업반, 보수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리기지를 그르하게 꾸러놓고 기술개진과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설비, 부속품생산과 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을 믿음직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다양하고 멋있는 양말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평양양말공장 너차양말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누리에 빛나는 조선소년운동의 휘황한 미래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소년운동은 오늘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항일의 피 어린 불길속에서 그 위대한 전진이 마련되고 지난 수십년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온 조선소년운동.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주체적인 소년운동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소년운동의 길에 뜨겁게 아로새겨져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투쟁시대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을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였다.》

조선소년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새날소년동맹의 결성과 떼어놓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조선소년운동은 새날소년동맹결성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시는새 날소년동맹이 추켜들었던 주체의 기치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오늘 우리의 소년단원들이 높이 든 이 구호의 참 뜻을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 무송에서 조선소년열애에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뜨겁게 새겨져 있다.

당시 무송시내에는 가정에 파묻혀 갈길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조선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주제 15 (1926)년 12월 초

화성의속을 종회하고 무송으로 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처지를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며 여러달동안 침침마져 잊으시고 소년조직을 내오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이께서는 무송시에 있는 조선소년들의 모임을 소집하시었다.

모임이 시작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은 새 사회건설을 감당하고있고, 조선의 미래인 소년들은 겨레의 일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면서 조선소년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높은 길로 이끌어줄 소년조직을 결성할 자리의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소년조직의 결성에 관한 그이의 구상은 모임참가자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결성을 한결같이 바라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무오르는 조직은 일체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며 르네상스 할수 있는 새 사회,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조직의 명칭도 그에 맞게 새날소년동맹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그후 소년조직을 하루빨리 내오기 위하여 수십리길을 걸으시며 조직사업에 전념하시어 때로는 밤 늦도록 친히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작성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무엇으로 다 해야될수 있으리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어 그해 12월 15일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시었다. 동맹규약을 발표하시었다.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은 《은, 더》의 활동규모를 넓혀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조선소년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사건이었다.

새날소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넓은 사상에 물젖지 않은 깨끗하고 참신한 세 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력만으로 튼튼히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으며 어둠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나라 소년들은 어둠이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조선소년운동은 주체의 기치 밑에 혁명적인 투쟁강령을 가지고 발전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고 조선소년운동의 깊고도 역센 력사적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제는 발발까지 무장한 백만대군이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소년들의 의지를 힘있게 피력하신 위대한 수령님, 들어키르보 《은, 더》에 이어 소년들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소년혁명조직을 무치고 일제타도를 엄숙히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의 결출한 위업에 매혹되어 얼마나 많은 조선소년들이 반일투쟁에 적극 뛰어들었는가.

새날소년동맹을 결성한후 혁명활동무대를 넓힘으로 옮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시었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여라 하면 김일시대에 울려 퍼지는 《소년 열애곡》과 《조선인민소년열애가》의 노래소리가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일시대에 처음으로 내오신 조직도 조선인

민간민의 담사네가 끝없이 이어지는 백두산밀영에는 자그마한 터밭이 있다. 백두광명성이기 전하여주는 고함치고서야 정답게 뛰어가는 소백수가에 자리잡은 터밭에는 백두산에 새겨진 나 다른없는 소백수에 내세우려는 새 력사를 펼쳐주신 항일의 녀성인 김경숙동지의 헌신의 자국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투쟁시대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을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였다.》

조선소년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새날소년동맹의 결성과 떼어놓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조선소년운동은 새날소년동맹결성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시는새 날소년동맹이 추켜들었던 주체의 기치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오늘 우리의 소년단원들이 높이 든 이 구호의 참 뜻을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 무송에서 조선소년열애에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뜨겁게 새겨져 있다.

당시 무송시내에는 가정에 파묻혀 갈길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조선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주제 15 (1926)년 12월 초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랑만적인 기업소라고 하시며

지난해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흥청년화력발전기업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날 기업소의 생산공정들의 전진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고나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화후생시설인 청춘원도 돌아보시었다.

청춘원이 몇몇이라고, 잘 꾸러있고 치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은 울름이 새우려있는 돌이아주시면서 청춘원을 희한하게 꾸리셨으니 평양지하철역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문화후생시설을 청춘원처럼 잘 꾸려야 조선적문화라고 말할수 있다고, 이것은 혁명적, 조직적, 규율성이 강한 우리 로동계급이 창조한 로동계급의 새 문화라고, 남흥로동계급이 조선식문화의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제법을 믿고 탐파 열정을 바쳐 그들이 이룩해놓은

되 모두 청춘시설을 생각하며 밝게 웃으며 자랑하고 하시면서 남흥청년화력발전기업을는 량만적인 기업소라고 자애로 넘친 웃음으로 말씀하시었다.

우리 로동계급이 이룩해놓은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로써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주체철사상의 빛나는 승리

인민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기어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주제 98 (2009)년 12월 어느날이었다.

생진계 강령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강령생산체계가 완성된 정련로직정치는 대우였다. 로에서는 주홍빛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있었다.

그장쾌한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은 쇠물은 성장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의

이르렀을 때였다. 대원들은 갑자기 환성을 울렸다. 사령부에서 얼마간 떨어져있는 새초밭가운데 규모있게 만들어놓은 발사대 남가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었던것 서 무엇이 하고계실까 하고

백두산에 피운 꽃

생각하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김경숙동지께서는 손을 손에 비껴보시며 이곳에 부부와 속 같같은 남새를 심으면 꽤 될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꽃과 같이 정갈한 백두산의 샘로 남새를 잘 가꾸어보자고 기뻐하던 어소로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새초밭에 잡풀이 나가시어 남새밭을 일구시고 구우에 새초를 베어다 두루히 덮어놓아 땅이 얼지 않도록 하시었다.

그후 도천에서 지하공작인 무를 수 행하고서 지 시던

파헤쳐보시는 김경숙동지를 보게 되었다. 그는 밀영건설을 하시는 바쁘신 속에서 소 백수의 새 천지에서 수백수목을 정히 들어놓으시고 사령부작식을 보장하시어 어머니께서 새초밭에서 무엇을 하고계실까 하고

백두산에 피운 꽃

생각하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김경숙동지께서는 손을 손에 비껴보시며 이곳에 부부와 속 같같은 남새를 심으면 꽤 될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꽃과 같이 정갈한 백두산의 샘로 남새를 잘 가꾸어보자고 기뻐하던 어소로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새초밭에 잡풀이 나가시어 남새밭을 일구시고 구우에 새초를 베어다 두루히 덮어놓아 땅이 얼지 않도록 하시었다.

그후 도천에서 지하공작인 무를 수 행하고서 지 시던

국가 책임 일군들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판람

【평양 1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이 14일 민수애 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군로단체, 생, 중앙기관 일군들,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장작가, 예술인, 기자, 언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설화와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대화 《장군님과 우리 들꽃대》, 여성 2중창 《장군님 발자국소리》, 남성중창 《총과 병사》, 시와 이야기 《백두의 혼련 열풍으로》, 판피리리합주 《전호

의 형상하였다.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피사하며 혁명적군인문화, 선군문화의 자랑찬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희세의 찬물정말을 높이 모신 혁명군대의 정신력과 불패의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무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조국보위와 장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승리자가 될 열의에 넘쳐있었다.

CNC화는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

오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우리 식의 우월한 최첨단기술에 토대하여 인민경제의 CNC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혁명이 되며 짧은 기간에 국가경제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는 데서 판권적인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첨단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압도하며 우리 식의 CNC기술을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력사를 빛내이며 인민경제의 CNC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최첨단을 돌파하여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CNC화는 대중의 혁명적기회를 고조시키고 생산자들의 기술기수준을 현저히 높여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 생산자대중이다. 인민들이 강한 정신력에 높은 기술기수준을 지녀야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 경제강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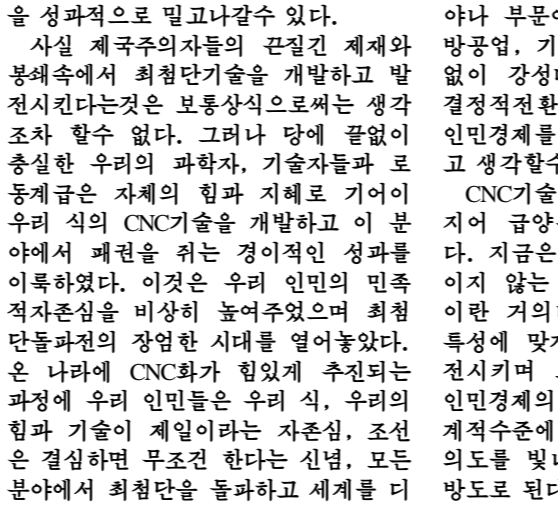
사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자제의 힘과 지혜로 기여어 우리 식의 CNC기술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 패권을 쥐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을 비방히 높여주었으며 최첨단과학의 장엄한 시대를 열어놓았다. 온 나라에 CNC화가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식, 우리의 힘과 기술을 제일이하는 자존심, 조선의 결심한 무조건 한다는 신념,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고 세계를 디

디고 올라서겠다는 리상과 배짱, 남들이 열결한, 백들을 접는것을 한결을에 뛰어넘으려는 각오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현실은 CNC화가 단순한 기술실현문제라 아니라 최첨단기술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 그 기상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나가는 것은 비약적인 현물이라 이러한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제는 강한 정신타와 함께 높은 기술기수준을 지닌 사람이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선 오늘 생산자대중이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 기술기수준이 높지 못하고서는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할수 없다. 지금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말 할것도 없고 로동자들도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한 기술층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대중이 현대적인 생산수단을 적격 다루는 기술층의 인간, 지식층의 인간으로 준비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중요한 비결로 된다.

인민경제를 CNC화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전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경제강국건설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요구한다. 그러자면 일정한 분야나 부문이 아니라 중앙공업이나 지방공업, 기간공업이나 식로공업 등 없이 강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 걸친적진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인민경제를 CNC화하는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CNC기술은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 지어 금양농사부문에도 도입할수 있다. 지금은 정보기술과 그 수단이 부족하여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나 없다. 그러므로 자체의 특성에 맞게 CNC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적극 도입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세계수준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뜻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된다.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판람. 위 사진은 공연 중인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축전 현장의 모습이다.

김정주 (2010)년 12월 15일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천만국민의 신념과 의지

올해는 조선로동당대표자와 조선로동당장년 65대를 우리 당과 우리 조국역사에 길이 빛내기 위하여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거세게 타오름 참으로 자랑스러운 해이다. 하다면 뜻깊은 이해력사의 기적을 창조해온 천만국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뜨겁게 간직된 삶과 투쟁의 진리는 무엇이었는가.

정신력이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한몸 아낌없이 바쳐가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정신력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었다.

《일심단결의 정신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정신이며 최고조력사의 기본추동력입니다.》

승리로 빛나는 이해를 돌이켜보노라면 정녕 잊을수 없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

이 되는 2012년에는 거이 강성대국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야말 철의 신명과 의지를 안고서 새해의 첫 기슭 최현발전진건설의 눈부러지는 언제에 세계인 위대한 장군님,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진시령을 왔다. 우리 병사들이 있는 최현발전진건설장은 최현발전진 건설의 모순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달구어준다. —그에 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 올해를 거이 2012년에 최현발전진건설을 끝낼수 있는 최현발전진건설을 열어놓는 해로 빛내어주시라.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흘리면서 그들은 잔뜩에는 질통을 지고 손에는 맷돌이를 들고 달려나와 땀과

대고조의 열풍속에 높이 발양된 불굴의 정신력

다로없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1월에 이어 4월과 11월 최현발전진건설을 거듭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민율과 기대에 거이 보답하려는 그들의 고결한 충정은 영웅적위훈의 원천으로 되었다. 여기에 군인건설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시공일력기복부 있다. 어느날 한 병사는 진동기의 동음이 고르르지 못한것을 감속하고 자기가 다진 콩크리트혼합물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해줄것을 제기하였다. 지휘관들은 의아해했다. 이미 진행한 검측결과와는 합적이었던것이다. 《언제에 티끌만 한 허점이 라도 생기면 어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드는 제마음이 티가 낫겠만 같아서...》 이것이 천련은 책임자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최현발전진 건설시대의 기념비적창조

원 군 길에서 찾은 보람

진 높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 하였으며 남쪽의 로동계급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의 온 나라의 대강사로 되는 남용가소 화공사를 완공하고 주체비료가 팡팡 쏟아지게 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내무군병사들은 원용당에 사회주의무공도원을 일떠세웠으며 대계도건설을 건설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후손들답게 사해의 날마다우에 용근한 군의 면적이고 맞먹는 부친상을 일으키고 팡팡한 대계도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쳐놓는 영웅적위훈을 창조 하였다. 그렇게 한달도 한달... 김일성 동지께서는 1월에 이어 2월에 이어 최현발전진건설을 넘쳐 수행하며 충진군의 발걸음은 더욱 크게 내걸었으며 주체철용방로의 정상조업을 보장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 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면서 당장전 65년으로 2년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길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온 나라에 비날론대정사를 안아온 2.8비날론합기업을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순환비동총비이라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대중적기술혁신으로 비날론들의 집을 철

위대한 장군님의 고상한 영감을 지닌 원군비공자들속에 지난 15년동안 인민군인들대 대한 원호사업 을 할하여은 안주시 운송협 동농장 로병본조원들과 10년세월이 넘도록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한 평양과채대 졸업원들도 있으며 선군시대 일군답게 본신형면과업정예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시인민위원회 국장 김명철, 철산군관개관리소 지배인 정국보, 흥원군 유협 동농장 관리위원장 손희경 등 무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 군들도 많다. 아름다우나 지향과 불같이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백성군의 파운주, 락랑구역의 고이향, 구장군의 리정순, 안악군의 김은미, 신천군의 한옥분, 용진군의 김은경 등무들은 조국보위투쟁에서 청춘을 빛인 특유군인들과 가정을 이루었다. 뜻깊은 올해에 원군사업 을 할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영감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 미용자들에겐 평안남도 인민병원 의사 림동원동무와 청년영예로 군공훈장기수리 공장 노동자 김명순동무처럼 많은 혁명영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특유군인들을 전행적의 심정으로 돌봐주셨고는 고결한 인간들도 수없이 많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아안 인민군인들을 전행적처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조건으로, 어길수 없는 생활 원칙으로 단 한사람의 내 조국을 위하여 사신 사람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당력과 배려로 최현발전진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한 긍지와 자랑 군인들의 얼굴마다에 넘쳐난다.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에서—

경제강국건설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업무를 피륙는 심장으로 받아안는 우리 인민은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이해의 부강조국건설의 년회에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조 감철중산투쟁에 펼쳐나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단결투쟁을 철골2유치원 졸업원들과 철골2동의 주민들, 남포시 천리마구역상업관리소와 천리마구역인민병원 졸업원들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지성이린 지원물자를 안고 달려왔다. 나라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지는데 이바지할 애국의 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었다. 《말없이 자기 맡은 일을 실속있게 하는 습은 애국자들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조국을 만드는 뿌리가 될 애국의 열정과 자각을 선군시대 애국의 열정을 높이고 새겨는 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징이다. 당장전 65년을 승리의 대축전에 로 빛낸 올해에 시대가 자랑하는 참된 애국자들의 대오가 더욱 늘어났다. 에제날의 공군도 오늘도 위훈속에서 빛나야 한다는 숭고한 의지를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는 통일영예로 군인상훈장화공장 지배인 김희관동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구우어주시는 소중환 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

위로 하여금 새겨야 할애국적인 자욱에 마음과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들의 인생관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것인가. 애제 선군시대 공조물동비라, 그들의 심장속에서 불타는 지성은 무엇이었는가. 17살부터 60나이가 지나도록 간직지건설자로 한생을

위로 하여금 새겨야 할애국적인 자욱에 마음과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들의 인생관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것인가. 애제 선군시대 공조물동비라, 그들의 심장속에서 불타는 지성은 무엇이었는가. 17살부터 60나이가 지나도록 간직지건설자로 한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12월 14일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모스크바에서 조로의 부상회담이 진행중이라고 발언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로씨야연방 외무상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박의춘외무상은 13일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의 부상과 회담을 진행하고 두 나라 외무성들 사이의 2011-2012년 교류계획서에 조인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올해에 두 나라가 조로공통선언발표와 조

선경마을 새집들이

이번에 새로 건설된 마을은 앞이 환히 트인 명당자리에 지붕과 울타리, 대문들조차 민중적 형식이 잘 살아나며 특색있게 건설되어 사람들의 눈을 끌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열매 살림집들과 작업반의 생산 건물들이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본보기마을로 필수 있는 새 마을을 건설할 대단한 목표를 내세우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건설에 한사합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 사업에 적극되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지도밑에 군인민위원회원들이 김장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부

조국을 만드는 뿌리가 되여

살아온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 합기업소 다자기계화사업소 지 배인 김성숙동무가 한 말이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마을을 막아 땀을 얻어내는 간직지건설은 뿌리없는 땅을 무를 때로는 땅으로 만드는데 불과합니다. 우리 장군님처럼 번영하는 조국의 뿌리가 되자는 인생관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선과 로씨야의 무상 회담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박의춘과 로씨야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사이의 회담이 1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 인철과 로씨야연방부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김영제, 상대측에서 외무성 부상 알렉세이 보로딘과 함께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로천선협 조판개발과 조선반도문제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스크바발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축구발전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중양체육학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사 윤광수동무 조국을 위해 바쳐가는 한 체육과학자의 진실한 애국의 마음과 불타는 열정을 소중히 알아주는 우리 당의 은총속에 그는 중양체육학원 교원, 강사로서, 연구사로서 헌신적연구를 하고있다.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사람들이 떨쳐나와 그를 마중해주고 조지과 집단에서는 윤광수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좋은 집이 생겨도 먼저 안겨주었고 행복만 새 살림도 꾸려주었다. 진정한 애국자이었던 그는 고마운 몸이었다. 그 고마운 마음을 파고들 수목 윤광수동무는 이뿐만 아니라 조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국적인 연구사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을 찾아 면접을 견기도 하였고 외국문도서들과 잡지들을 번역해 기 위해 더 높은 지식의 탐을 쌓기 위해 피라는 노력을 기울이고 하였다. 그가 집필한 수많은 교과서들과 참고서, 도서들은 조국에 바쳐온 그의 성실한 학업의 자욱이 담겨 있다. 그 나날 윤광수동무는 부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고 나라

조선과 로씨야외무성사이의 2011-2012년 교류계획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박의춘과 로씨야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사이의 회담이 1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 인철과 로씨야연방부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김영제, 상대측에서 외무성 부상 알렉세이 보로딘과 함께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로천선협 조판개발과 조선반도문제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스크바발 조선중앙통신】

교류계획서에 조인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올해에 두 나라가 조로공통선언발표와 조

자랑 많은 교원부부

북청군 룡전중학교 주성진, 리순남동무들은 학교가 자랑하는 교원부부이다. 이들은 10여년세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그러지는 영광의 땅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오고있다.

평양을 향하여

10월8일오범교수자이며 새 교수방법등록증의 소유자들이 이들을 부르는 오범교수들이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는 길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참된 삶을 빛내어가고있다. 룡봉통신원 주 순 화

특파기자 강진형

